

#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1871)

심장중의강철



##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

파리에 다시 한 번더 포위와 포격을 가하던[1]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날, 프랑스의 비가 흐르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여성 동지들과 이제 막 태어난 어린이들이 저들의 포탄아래 죽게 만들던 그 포격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 인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파리와 전 세계의 나라들은 지금 이 파리에서의 혁명이, 반란이, 투쟁이 무슨 이유를 가졌는지, 무슨 성격을 가졌는지, 무슨 목표를 가졌는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고통받고, 사별하고 불행해야했던 모든 책임은 프랑스를 배신하고 파리를 해외에 팔아버린 매파적이고 집요하게 수도를 파괴하려던

저 악랄한 파괴자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공화국과 자유의 재앙은 저들의 배반과 범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꼬뮈른은 파리 인민들의 열정과 희망을 깨닫고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르사유에 앉아있는 정치인들이 오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비난만 하고 있는 3월 18일[2]의 투쟁의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파리는 프랑스를 위해 일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투쟁과 희생을 통해서 프랑스의 지적, 도덕적, 행정적, 경제적 재생과 프랑스의 영광과 번영을 원합니다.

꼬뮈른은 무엇을 원합니까?

인민의 권리, 자유롭고 정상적인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유일한 통치 형태인 공화정을 인정하고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프랑스인이 인간, 시민, 노동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코뮌의 절대적 자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코뮌이 평등한 자치권으로 활동하길 요구합니다, 코뮌은 프랑스의 화합을 주장합니다, 코뮌 소유의 권리로 예산의 지출의 대한 직접민주주의 투표, 세급의 분배의 대한 국민투표, 자발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치안과 지역 서비스, 교육, 재산 관리, 모든 직급의 판사, 공무원등의 해임, 등용, 책임등의 대한 투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 노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코뮌 민병대, 언론의 자유등이 있을 것입니다.

파리는 물론 중앙 행정부, 연합 코뮌의 대표 또한 위와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방식을 구현해야하며 이 것 만큼 지역자치를 보증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행동의 자유와 자율성의 보장으로 파리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및 경제 개혁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생산, 교환등의 기관을 신설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며 전파할 기관들도 만듭니다.

권력과 재산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하여 인민들의 희망 및 경험에 바탕을 둔 데이터로 이를 평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파리 코뮌이 패권주의에 기반을 두고있고,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자기 국가들의 성격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전역에 일어나는 연방 축일[3]에 우리 조상들이 혁명으로서 프랑스를 다시 세운 것을 망각한 것이며 이를 기념한다는 이들이 우릴 비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코뮌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의회공화정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저 비지성적, 전제주의적인 역겨운 중앙집권화일 뿐입니다.

파리가 원하는 인민통합이란 것은 모든 지역 코뮌들의 자발적인 연합,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 지역자치, 자유와 모든 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인민들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연대와 연합입니다.

3월 18일의 투쟁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공동체 혁명은 실험적이고, 긍정적이며, 과학적인 새 시대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고있는 구 정부와 성직자의 세계, 군국주의, 관료주의, 착취, 독점, 투기, 독점, 특권의 종말이며 조국의 불행과 재앙의 대한 종말입  
다.

거짓과 중상모략에 속아 넘어가는 이 귀하고 위대한 조국을 안심시켜야합니다!

파리와 베르사유의 투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입니다.

그 결과를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파리 코뮌 방위군이 불굴의 에너지로 추구하는 것은 승리뿐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들의 사상과 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부릅니다!

우리 팔에 안긴 파리여, 그대는 용기 못지않게 침착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네

그의 뿔어오르는 열정은 질서를 다시금 만들길 원한다네

그대여 그는 영웅주의만큼이나 이성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네

그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영광에 대한 헌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아 프랑스여! 프랑스가 이 유혈충동을 끝내야만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의지를 표명하며 베르사유를 무장 해제 시키는 것은 우리 프랑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결전으로서 권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연대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선언합니다.

파리가 이 전투에서 우리의 편이 되도록!

이 싸움은 오직 코뮌의 승리나 파리의 파멸로만 끝날 것입니다!

파리의 인민인 우리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결실을 맺을 혁명의 장에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우린 이 혁명에서 승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1871년 4월 19일

파리 코뮌

[1] 보불전쟁 당시 파리 포위전

[2] Soulèvement du 18 mars 1871. 파리에서 일어난 시위로 정부군은 베르사유로 후퇴하여 파리를 코뮌군에게 넘겨줌 파리코뮌의 시작이 된 사건

[3] Fête de la Fédération.